



OPEC+, 9월에도 증산 지속

Summary

- 사우디 등 OPEC+ 내 8개 산유국은 9월에도 8월과 동일한 규모의 증산에 나설 것으로 발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2023년 말 수준의 산유량을 회복할 예정
- 국제유가는 3분기 중 상방변동성이 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특히 8월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여부,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도에 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며, OPEC+ 내 8개국이 10월에도 증산 기초를 이어가는지 살펴볼 필요

OPEC+, 9월 생산쿼터 발표

3일(현지시간) 사우디 등 OPEC+ 내 8개 산유국은 9월 산유량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 이들은 2023년 4월 자발적 감산을 시작했고, 202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감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음.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9월에도 8개의 OPEC+ 산유국은 증산을 이어가고, 증산 규모는 8월과 유사. 시장에서는 회의 전 9월 증산 규모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던 만큼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증산으로 볼 수 있음. 추후 시장에서는 10월에도 OPEC+가 증산을 이어가는지 여부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사우디 등 8개 산유국은 2025년 5월, 2025년 8월 두 차례 증산 규모를 상향했으며, 이에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2023년 말 수준으로 산유량을 회복하기 때문. 10월 산유량 결정을 위한 회의는 9월 7일(현지시간) 진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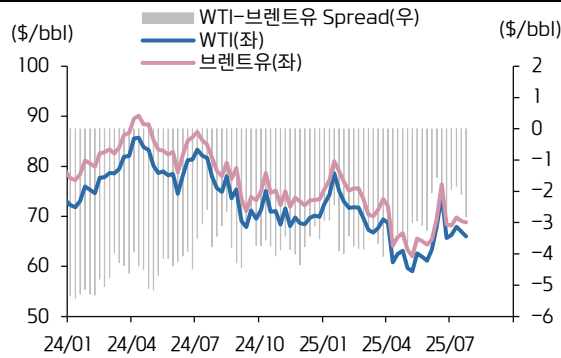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불안

최근 국제유가는 다양한 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뚜렷한 방향성 부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로 미국과 각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지고 있으나, 최악은 지났다는 전망이 여전히 남아있어 무역분쟁 발 수요 불안은 진정되는 흐름. 주요 에너지기관의 2025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가 4월을 기점으로 큰 변화 없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시사. 물론, 미국 관세 이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수요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는 남아있지만, 미국 드라이빙 시즌 등 계절적으로 원유 소비가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이 관련 우려를 상쇄시켜줄 것으로 판단.

원유 수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공급 이슈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현재 원유시장 내 공급 불안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기인. 6월 중순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은 양측의 휴전으로 진정되었으나, 미국의 이란이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기한 내에 휴전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 및 러시아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 이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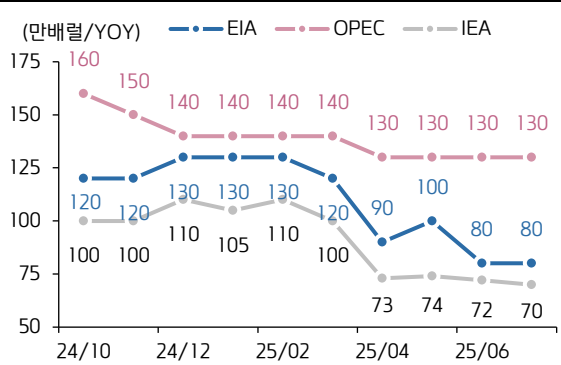
현재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 우려가 높고 실제 수급 여건도 초과공급 상태이지만, 당분간 유가의 상방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분기 글로벌 원유 재고가 증가했으나 이는 중국의 재고 확대 기초에 따른 것이며, 중국의 재고 증가로 다른 지역의 재고 감소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 또한, 미국 에너지기구(EIA)는 낮은 유가 등으로 미국 내 시추 활동이 둔화된 점을 감안해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현재 시장에서는 OPEC+도 10월부터 산유량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따라서 여름철 원유 수요가 유입되는 동안 원유시장은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최근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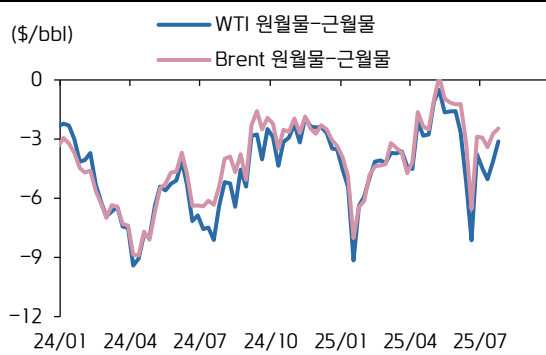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에너지기관별 2025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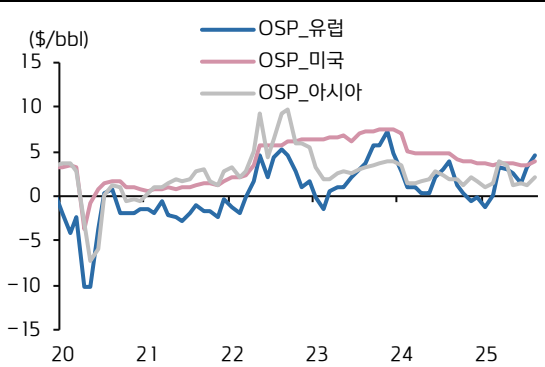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WTI, Brent의 원월물-근월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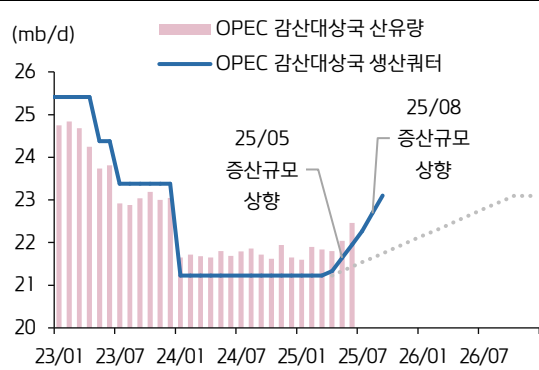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사우디 지역별 OSP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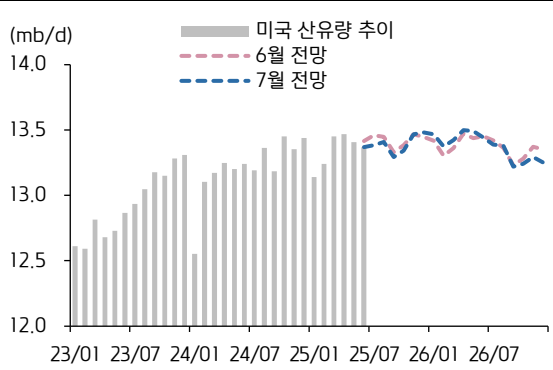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OPEC 감산대상 산유국 생산쿼터와 산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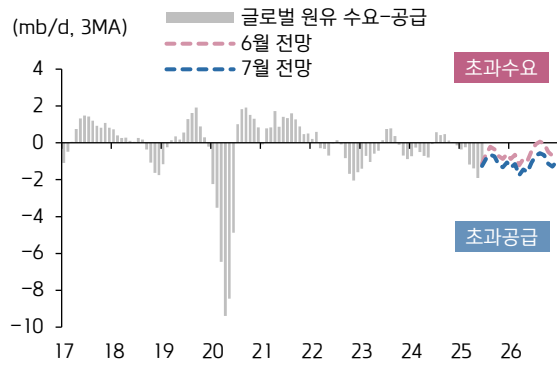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회색 점선은 당초 발표했던 증산 스케줄 기준

미국 산유량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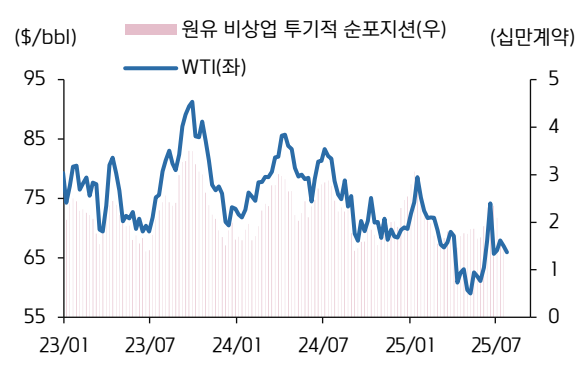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원유 수요-공급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제유가와 비상업 순매수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